

아랍문학의 한국어 번역 및 한국문학의 아랍어 번역 현황에 대한 고찰과 과제*

곽 순 례
(한국외대)

1. 서론

대한출판문화협회가 2016년에 배포한 2015년도 출판 현황¹⁾에 따르면 2015년 한 해에 한국에서 발행된 신간 도서는 45,213종, 85,018,354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발행 종수에서 번역서가 차지하는 비중은 21.5%(9,714종)이다. 2014년과 마찬가지로 일본과 미국 등 일부 국가에 편중된 모습을 보였으며, 분야별로는 문학 25.3%(2,457종), 만화20.9%(2,033종), 아동14.1%(1,374종) 순이며, 국가별로는 일본(4,088종), 미국(2,741종), 영국(752종), 프랑스(496종), 중국(480종), 독일(344종)순으로 번역 출간되었고, 기타 국가 중에는 중동(16종), 아

프리카(15종) 순으로 집계됐다.²⁾ 이러한 수치에서 한국에서 번역된 아랍문학 서적은 아주 제한적인 수치임을 확인할 수 있다. 1988년 이집트 작가 나집 마흐푸즈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하여 아랍문학이 세계적 수준이고, 아랍어가 22개 아랍 국가에서 모국어 또는 공용어로 사용되고, 전 세계 약 16억 무슬림의 종교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UN의 6개 공용어 중에 하나인 아랍어의 세계적 위상에 비하면 너무 적은 수치이다.

한편, 한국문학의 아랍어 번역은 대부분 한국문학번역원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한국의 문학과 문화를 세계와 공유하려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 한국문학번역원이 설립되어 완역 원고를 번역지원하는 방식에서 2014년부터 샘플 번역을 선 지원한 후, 해외 출판사와의 출간계약이 성사된 경우에 한하여 작품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번역을 지원하고 있다.³⁾ 한국문학번역원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7년까지 1,508건(2017년 4분기 기준)에 대해 번역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이중 한국문학의 아랍어 번역에 대한 지원은 2005년 한국대표단편선(김동인 외)을 시작으로 단지 19건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지원의 1.25%에 해당한다. 이 또한 22개 아랍 국가의 독자와 출판시장을 고려해 볼 때 낮은 수치이다.

반면, 한국과 아랍 국가들 간에 교류가 점증하면서 한국인들은 아랍 세계와 아랍 문화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2003년 3월에 이라크 전쟁이 발발하면서 한국인들은 아랍 세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으며, 한국 공중과 TV에서 전쟁 관련 뉴스를 내보낼 때 아랍어로 쓰여진 ‘알자지라’라는 자막이 화면에 나타나 아랍어 글자를 많이 접하게 되면서 한국인들은 이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게다가 최근 10년 동안 한국과 아랍 국가들 간의 교류는 현격하게 많아지고 있다. 특히 경제 적인 면에서 교류가 증가하고 있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에 상업용 원전 건설 수주, 2011년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보건청과 환자송출 및 의료기관 진출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사우디아라비아에 의료기관 위탁운영 시스템 진출, 2015년 사우디아라비아에 한국형 원전 수출 MOU 체결 등으로 한국과 아랍간의 교류가 빠르게 증대되었다. 이로 인하여 한국과 아랍 국가들 간의 관계는 과거 경제와 에너지 분야 등 경제 분야에서 최근에는 정치, 사회, 교

* 이 연구는 2018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1) 2015년 1월 1일~2015년 12월 31일 출판 현황, 2016년 3월 24일에 배포.

2) [http:// www.kpa21.or.kr/](http://www.kpa21.or.kr/), 2018년 06월 27일 검색.

3) <https://www.ltkorea.or.kr/transupport.do>, 2018년 07월 14일 검색.

육, 문화, 관광, 스포츠, 의료, 환경 등 경제 외적인 분야로 급속하게 확대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실용적인 경제적 이유로 아랍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아랍 문화나 아랍문학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은편이다.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5개 대학교 6개 캠퍼스에서 아랍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2005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 아랍어가 지정되면서 다양한 이유로 많은 학생들이 아랍어를 선택하고 있다. 2017년에는 제2외국어·한문 영역 응시자 총 70,630명 중 51,882명(73.5%)이 아랍어를 선택하였다.³⁾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아랍어와 아랍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또한 아랍 국가에서 한류로 인한 K-드라마와 K-Pop의 인기로 힘입어 한국의 문화 콘텐츠에 대한 아랍 국민들의 욕구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2018년 1월 두바이 분수 쇼에 엑소의 'Power'가 배경음악으로 선정되어 공연되었을 때 폭발적인 환호와 박수가 터져나왔다. 또한 2018년 4월에 두바이에서 'SM TOWN LIVE WORLD TOUR VI in DUBAI'의 대규모 공연이 열려 많은 아랍에미리트 국민들이 한국어 가사로 노래를 따라 부르는 팬덤 문화를 보여 주었다. 이는 아랍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보여준다.

위와 같이 한국과 아랍 국가들 간에 문학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아랍문학이 한국어로 번역되어 출간되기 시작한 1984년부터 2017년까지 아랍문학의 한국어 번역과, 한국문학의 아랍어 번역 현황을 살펴보면서 과거를 돌아보고, 한국과 아랍간의 교류가 다양화 되고 활발해 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랍문학의 한국어 번역, 한국문학의 아랍어 번역이 여전히 저조한 상태에 있는 현재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미래에 아랍문학 번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아랍문학의 한국어 번역과, 한국문학의 아랍어 번역 현황과 관련된 자료를 제시하고, 이를 분석하여 향후 아랍문학 번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과 제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연구 목표의 일환으로, 통번역대학원 한아과 석사 번역 논문 목록과

한국교류재단에서 계간지로 발행되는 『코리아나(KOREANA)』 지 아랍어 본에 번역되어 게재된 한국 단편소설의 목록을 본 연구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이는 석사 번역 논문으로 제출한 아랍문학 작품 중 1990년 논문인 『북으로 가는 이주의 계절』(موسم الهجرة إلى الشمال, 이상숙)⁴⁾에 관심 있는 출판사가 2014년 번역가에게 연락하여 논문을 개정한 후 출간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한국어로 이미 번역이 이루어진 아랍문학 작품들을 본 연구에서 데이터화하여 소개한다면 출판 관계자와 번역가 간에 교류의 기회와 출판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물론 출판하기 위해서는 기존 논문 번역을 검토하고 문장을 다듬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코리아나에 실린 아랍어로 번역된 한국 단편소설 목록을 소개한다면 이 또한 출판 기회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두 종류의 자료와 기준에 번역된 문학 작품 현황 자료를 활용한다면 향후 아랍문학의 한국어 번역과, 한국문학의 아랍어 번역에 관심 있는 아랍어 번역가들과 출판 관계자들이 번역·출판할 작품을 검토하고 선정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2. 선행 연구

아랍문학 번역과 관련된 선행 연구로는 김종도가 2005년 아랍어 교육으로부터 시작하여 한국에서의 아랍어 번역사를 고찰하였다. 그는 아랍어 번역 현황에서 아랍어 번역기관, 실용번역, 문학번역, 미디어번역, 번역수업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현황을 소개하였고, 통번역대학원 한아과의 석사 논문 번역 목록도 소개하였다. 아랍어 번역을 소설, 시, 종교, 교재 부문으로 분류하여, 출간된 단행본을 비롯한 잡지, 학술지 등에 실린 단편을 포함하여 소개하였고, 번역가

4) 다마스쿠스 소재 아랍학술원은 2001년 이 작품을 20세기 아랍의 가장 중요한 작품으로 선정했다. 에드워드 사이드는 이 작품을 현대아랍문학을 빛낸 여섯 편 중 하나로 꼽은 바 있다. 영국의 《가디언》은 이 작품을 ‘세계문학사를 빛낸 100권의 명저’로 꼽았다. 노벨 연구소는 세계 문학 100선에 선정하였다. 하지만 정작 그의 고국 수단에서는 오랫동안 금서로 지정되었다. 조셉 콘래드의 『암흑의 핵심』과 자주 비교되면서 탈식민주의 논쟁의 단골 소재가 되기도 했다.

3)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8/08/20/2018082000112.html>, 2018년 08월 21일 검색.

별로 나누어 작품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교재 부분에서는 아한사전, 한아사전, 전문용어 사전, 번역과목 교재, 더 나아가 문법교재 등과 문화관련 번역, 한국 관련 번역이 소개되어 있다. 이외에도 아랍어 통번역과 관련된 논문도 교재 부문에서 소개하고 있다. 아랍어 번역의 과제로 1) 번역학 과목 개설, 2) 전문용어집 또는 예문 집 발간, 3) 번역물의 데이터화, 4) 아랍어 번역학의 활성화 5) 한국의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한아과 번역교과목 개설 및 교수진의 다양화, 6) 아랍권 및 이슬람권에 대한 인식 전환, 7) 파행적인 제2외국어 교육의 정상화, 8) 아랍어 번역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김능우(2011)는 아랍문학을 비롯한 터키문학, 이란(페르시아)문학을 포함한 중동문학의 번역 상황을 고찰하였다. 아랍문학은 ST가 아랍어인 것 뿐만 아니라 영어, 프랑스어, 일본어 등 매개어를 통해 한국어로 번역된 아랍문학작품을 잡지와 학술지등에 게재된 단편을 제외하고 단행본을 중심으로 현황을 소개하였다. 소개된 작품 중 아랍어에서 번역된 작품이 28개 매개어를 통해 번역된 작품이 26개로 비슷한 수치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주지할 사항은 1970년대와 1980년대 전반기에는 매개어를 통해 아랍문학 작품이 번역되었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는 아랍어에서 작품번역이 시도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1) 아랍 고전 작품의 발굴, 2) 다양한 아랍국가의 문학작품 번역, 3) 시의성을 고려한 문학상 수상작 발굴 번역, 4) 현대 아랍문학 작품과 작가를 알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하고 있다.

박순례(2013)는 「한국에서 아랍어 통번역 교육 및 통번역 연구 현황」을 통해 학부과정에 아랍어 통번역 과목이 개설된 학교와 통번역 관련 교과목을 소개하고, 통번역 전문대학원에서의 아랍어 통번역 교육의 교과과정 및 졸업생 현황을 소개하였다. 이외에도 아랍어 통번역학 연구 현황과 더불어 아랍문학의 한국어 번역과 한국문학의 아랍어번역 현황을 소개하고 아랍어 통번역 교육과 연구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는 1) 한국에서 아랍어 교육 환경을 고려하여 통번역 전문대학원에서 학습번역과 전문번역을 접목하여 교육, 2) 아랍어 전문 통번역사의 자격 강화, 3) 교재 개발, 4) 아랍 문화 및 이슬람 문화의 이해 및 문화소 통번역 훈련 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김종도(2005)의 연구와 차별화하여 문학번역의 현황만을 다루고, 저널과 학회지에 실린 단편을 제외하고 단행본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김능우

(2011)의 연구와 차별화하여 아랍어에서 번역된 아랍문학 작품과 아랍어로 번역된 한국문학 작품만을 대상으로 하며, 박순례(2013)의 연구와 차별화하여 교육과 연구 부분을 배제한 아랍문학 번역 현황만을 다룬다.

3. 아랍문학의 한국어 번역에 관한 고찰

본 연구는 수많은 문학 작품 번역서가 한국 출판 시장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현실에서 아랍문학 작품의 번역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은 아랍문학 작품이 아랍어에서 한국어로 번역되어 단행본으로 출간된 작품을 대상으로 하며, 잡지나 학회 논총 등에 게재된 단편 번역 작품은 제외하였다. 또한 아랍 작가가 아랍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출간하여 한국어로 번역된 작품은 제외하였고, 아랍어로 출간된 아랍문학을 영어나 프랑스어를 매개어로 번역한 작품도 제외하였다. 단, 일부 의미 있는 작품은 아랍문학의 한국어 번역 현황으로가 아닌 아랍문학 작품을 한국에 알린 의미로 소개한다. 본 연구에서 아랍 작가의 한국어 표기는 번역 단행본이나 번역 논문에 표기된 한국어 표기를 그대로 표기한다. 따라서 동일한 아랍 작가의 한국어 표기가 번역가에 따라 다르게 표기 될 수 있다. 아랍어의 한국어 표기 통일안이 2017년에 마련되어 그 이전에 아랍어의 한국어 표기는 번역가에 따라 다르게 표기될 수 있다.

3.1 아랍문학의 한국어 번역 현황

1988년 이집트의 소설가 나집 마흐푸즈(نجيب محفوظ)가 아랍 세계에서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여 세계에서 아랍문학의 보편적인 문학성을 인정받았고(사회만 2000: 224) 한국 독자에게서도 관심을 끄는 기회가 되었다.

나집 마흐푸즈의 수상작인 『우리 동네 아이들(أولاد حارتنا)』는 1988년부터 2015년까지 양희정(2018: 43~44)이 밝히고 있는 7종과 전완경의 번역서를 포함해 8종이 출간되었다. 8종의 번역본 중에 문애희(1988-2)는 영어본을 참조해서 아랍어에서 번역했다고 밝히고 있고, 배해경(2015)은 아랍어에서 번역했다고 밝히고 있고, 정성호(1988, 2007, 2013)역은 영어를 매개어로 중역되었다. 이두선

(1988, 1995)역, 문애희(1988-1)역, 이명중(1988)역, 전완경역(1988), 역자미상(1989) 번역본은 ST가 아랍어인지 영어인지 밝히고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세계적으로 문학성을 인정받은 책조차도 상을 받은 지 27년이 지나서야 아랍어를 ST로 한 한글 번역본이 출판되었다는 것은 현재 한국에서 아랍문학의 번역과 출판 상황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아랍문학의 한국어 번역이 시작된 것은 송경숙(1984)의 『아랍단편선』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편저자는 아랍어 학습과 아랍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책을 출간한다고 밝히고 있어 엄격하게 보면 순수한 아랍문학 번역서로 보기 어렵다. 아랍단편선에는 앗파이브 앗쌀리흐(الطيب الصالح, 수단)의 와드 하미드의 돛나무(دومة ود حامد), 무함마드 압둘 할림 압둘라(محمد عبد الحليم عبد الله, 이집트)의 어린 숙녀(الآنسة المغيرة), 갓산 카나파니(غسان كنفاني, 팔레스타인)의 그 어린 것, 난민수용소로 가다(إلى المخيم)와 12호 병상의 죽음(موت رقم 12), 마흐무드 타이무르(محمود تيمور, 이집트)의 종이 왕관(تاج من ورق), 압둘 후마이드 본 하두까(عبد الحميد بن هدوقة, 알제리)의 이방인(المغرب), 일파트 알이달비(الفة الإدلبى, 시리아)의 두 개의 열쇠(مفتاحان), 이흐싼 압둘 꾸두스(إحسان! عبد القدوس, 이집트)의 걸인들의 파업(إضراب الشحاذين), 지브란 칼릴 지브란(جبران خليل جبران, 레바논)의 마르탈 바니아(مرتا البانية), 나집 마흐푸즈(이집트)의 자아발라위(زعلواى), 자카리아 타미르(زكريا تامر, 시리아)의 범죄(الجريمة), 무함마드 닛과아(محمد نفاع, 팔레스타인)의 땅을 사랑하기에(لأننا نحبه الأرض)등 11명 작가의 12작품이 포함되어 있다.

그 후 나집 마흐푸즈의 『도적과 개들』(اللمس والكلاب, 송경숙, 1986, 1998)이 번역·출간되었다. 1988년 이집트 작가 나집 마흐푸즈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그의 여러 작품이 번역·출간되었다. 그 중에는 노벨 수상작으로 알려진 『우리동네 아이들』(أولاد حارتنا)이 전완경과 문애희에 의해 번역·출간되었고, 『포로의 옷』(بدلة الأسير, 문애희), 『미라마르의 겨울』(ميرامار, 배혜경), 『미다끄 골목 사람들』(زقاق المدق, 이영태, 문정민, 박세훈)이 번역·출간 되었다. 이와 같이 노벨 문학상 수상 직후 나집 마흐푸즈의 많은 작품들이 번역되어 출간되어 아랍 문학에 대한 한국인 독자들의 관심을 끌었으나 이 열기는 오래 지속되지 못하였다.

1991년에 따하 후세인의 『밤새들의 기도』(دعاء الكروان, 전완경)가 번역·출간

되었고(김종도 2005: 7), 1998년에 바이다바(بيدبا)의 『칼릴라와 담나』(كليلة ودمنة, 이동은)가 압둘라 이븐 알 무카파(عبد الله ابن المقفع)의 아랍어 번역본에서 한국어로 번역·출간된 후, 2008년과 2018년에 개정되었다.

2001년 14세기 초 이븐 바투타(ابن بطوطة)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으로 10만여 km를 여행한 기록에 대한 『이븐 바투타 여행기』(رحلة ابن بطوطة, 정수일)가, 2003년에 사담 후세인(صدام حسين)의 『자비비와 왕』(زبيبة والملك, 안현주, 배혜경, 박재양, 최진영, 이동은, 장세원)이 번역·출간되었다. 2004년 송경숙은 갓산 카나파니(غسان كنفاني)의 『태양속의 남자와 기타 단편』을 번역·출간하였고, 문애희는 『천국에도 그 여자의 자리는 없다』(ليس لها مكان في الجنة)에서 책 제목의 저자이자 대표적인 아랍의 여성 작가 나왈 알싸오다위(نوال السعداوي)를 포함한 아랍 13개국(이집트 6명, 수단 1명, 팔레스타인 2명, 시리아 1명, 레바논 1명, 이라크 6명, 사우디아라비아 1명, 쿠웨이트 1명, 예멘 1명, 아랍에미리트 1명, 모로코 2명, 알제리 1명, 리비아 1명) 대표 작가들의 단편소설 40편을 선정하여, 억압받고 있는 아랍 여성들의 삶을 그리고 있는 아랍문학을 소개하고 있다. 2005년에 팔레스타인 문학의 버지니아 울프를 불리는 사하르 칼리파(سحر خليفة)의 『가시 선인장』(الصبار, 송경숙)을 번역·출간되었고, 현대 아랍 대표 시인 3인 이라크인 바드리 샤키르 알사이얌(بدر شاكر السياب)과 압둘 와합 알바이티(عبد الوهاب البياتي)·시리아인 아도니스(أدونيس)의 『걸프만의 이방인』(غريب على الخليج, 임병필)이 번역·출간되었다. 2007년에 송경숙은 팔레스타인의 민족시인인 마흐무드 다르위시(محمود درويش)의 시 중 엄선한 시를 번역하여 『팔레스타인에서 온 여인』을 출간하였고, 서기 860년 전후에 쓰여진 아랍의 가장 대표적인 아랍어 풍자서 알-자히드(الحافظ)의 『수전노』(김정아)가 대산재단에서 지원하는 대산세계문학 총서의 일환으로 번역·출간되었다. 2008년에 아슈라프 아블 야지드(أشرف أبو زيد)의 『사마위스로 가는 길』(الطريق إلى شماس, 배혜경, 이동은, 최진영, 윤은경), 살

5) 2006년 장편 소설 『형상, 성상, 그리고 구약』으로 나집 마흐푸즈 상 수상.

6) 1973년 미국에서 ‘세계시인협회상’을 수상.

7) 로터스 상, 레닌 평화상, 레닌 재단이 수여하는 문화자유상 수상. 프랑스 정부가 주는 예술문학 훈장 받음. 그의 시들은 35개 언어로 번역.

8) 이슬람 사상의 한 분파인 ‘무오타질라’의 위대한 학자이자 저술가. 저서가 200여 편에 달함.

와 바크르(بكر سلوى)의 『황금 마차는 하늘로 오르지 않는다』(العربة الذهبية لا تصعد!) (김능우), 『세계민담전집-아랍 편』(김능우)이 번역·출간되었고, 임병필이 ‘사랑의 시인’, ‘여성의 시인’이란 별명이 붙은 시리아의 니자르 깡바니 (نزار قباني)와 20여 개 아랍 국가들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인들의 사랑시를 번역한 『아랍인의 사랑』을 출간하였다. 2009년에 압둘라 이븐 알 무카파(عبد الله ابن المقفع)의 『칼릴라와 디나』(كليلة ودمنة), 조희선)가 번역·출간되어 2015년에 개정되었다.

2006년 11월 민족문학작가회의(이사장 정희성) 초청으로 내한한 팔레스타인 작가 사하르 칼리파가 ‘고통의 기억과 새로운 희망의 연대: 아시아-아프리카 문학’이란 주제로 열리는 ‘제13회 세계 작가와의 대화’ 행사에 참여해 연세대학교와 원광대학교에서 강연을 하였으며 그의 출세작 『가시선인장』을 비롯한 작품들을 소개하여 한국에서 인지도를 높였다.⁹⁾ 2009년에 자신의 대표 장편소설 『유산』(الميراث, 송경숙)을 한국에서 번역·출간하게 되어 내한하였고 제2회 한국-아랍문학 포럼에 참석했다¹⁰⁾. 그의 작품 『유산』(الميراث, 송경숙)은 2015년에 재출간되었다.

2011년에 알라 알아스와니(علاء الأسواني)의 『야쿠비안 빌딩』(عمارة يعقوبيان, 김능우)이 번역·출간되었다. 같은 해에 출판사 글누림에서 탈 서구중심주의 노력의 일환으로, 서구의 인식론적 폭력에 맞서기 위하여, 전 지구적 불평등 해소 노력의 일환으로 비서구 문학전집을 출판하는데 그 일환으로 이집트 6편, 예멘 3편, 튀니지 3편, 알제리 2편, 요르단 2편, 이라크, 시리아, 바레인, 리비아 각각 1편 등 총 20편으로 『아랍 단편 소설선』을 출간하였다. 글누림은 이 책을 통해 알라딘의 요술램프, 매직카펫, 동방의 매혹, 전제 정치의 온상이라는 상투적인 아랍상에서 벗어난 아랍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독자에게 주고자 하였고, 아랍권의 정치적 현실, 실생활, 공포와 희망이 뒤섞인 상황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그러나 작가들 이름 표기와 번역가의 이름으로 보아 ST가 아랍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매개로 번역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2년 살와 바크르(بكر سلوى)¹¹⁾의 『쿠쿠 수단 카바쉬』(كوكو سودان كباشي, 김

능우)이 번역·출간 되었고, 동화 2편 왈리드 따히르(وليد طاهر)의 『검은 점』(النقطة السوداء, 공지현), 아마니 알아슈마위(أمانى العشموي)의 『날아라 연아』(طيري يا طيارة, 공지현)가 번역·출간되었다. 2012년 김능우는 유일신 종교인 이슬람이 출현하기 이전 자힐리아 시대의 이무를 까이스, 다라파 이븐 알압드, 주하이르 이븐 아비 술마, 라비드 이븐 라비아, 아므르 이븐 쿨숨, 안타라 이븐 샷다드, 알하리스 이븐 힐리자 등 7명의 우수한 시인들이 남긴 7편의 시를 수록한 작품집 『무알라 까트』(معلقات)를 번역·출간하여 이슬람 이전 시대에 발달한 아랍 정형시의 전형 을 보여주며 다신교 시대 아랍인의 원시적 생명력이 가득한 독특한 인생관과 삶의 다양한 양상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2012년 또한 출판사 글누림에서 비서구 문학전집 시리즈의 세 번째 편으로 주제와 문체가 독창적이고 대담한 작품, 금기에 도전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작품등을 선정하여, 시리아, 이집트, 모로코, 오만, 이라크 등 14개 아랍국 여성 작가들의 작품을 모아 『아랍 여성 단편 소설선』을 출간하였다. 그러나 이 책 역시 작가들 이름 표기와 번역가의 이름으로 보아 ST가 아랍어가 아닌 영어나 프랑스어를 매개로 번역 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3년에 아랍 국가들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시인 중의 한명인 쿠웨이트 시인 수아드 알사바(سعاد الصباح)¹²⁾의 시집 『쿠웨이트 여자』(امرأة كويتية, 장세원, 이동은), 2014년에 알라 알아스와니(علاء الأسواني)의 『시카고』(شيكاغو, 김능우), 타 예브 살리흐(الطيب الصالح)의 『북으로 가는 이주의 계절』(موسم الهجرة إلى الشمال, 이상숙)¹³⁾이 번역·출간되었는데 『북으로 가는 이주의 계절』은 1990년 앳 타이브 쉘리흐의 『북으로 향하는 이주의 계절』로 제출된 석사 번역 논문을 향후 개정

- 11) 이집트 여성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이집트 방언과 고전 아랍어를 혼용한 특이한 문체가 돋보임. 1993년 독일 국영 라디오가 시상하는 소설 부문 대상을 수상.
- 12) 시를 통해 여성들에 대한 따뜻한 인간애를 아낌없이 보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세계적인 명사들과 최고 전문가들을 선정하는 「Who's Who」에도 이름을 올림.
- 13) 다마스쿠스 소재 아랍학술원은 2001년 이 작품을 20세기 아랍의 가장 중요한 작품으로 선정했다. 에드워드 사이드는 이 작품을 현대아랍문학을 빛낸 여섯 편 중 하나로 꼽은 바 있다. 영국의 《가디언》은 이 작품을 ‘세계문학사를 빛낸 100권의 명저’로 꼽았다. 노벨 연구소는 세계 문학 100선에 선정하였다. 하지만 정작 그의 고국 수단에서는 오랫동안 금서로 지정되었다. 조셉 콘래드의 『암흑의 핵심』과 자주 비교되면서 탈식민주의 논쟁의 단골 소재가 되기도 했다.

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611201732071&code=960205, 2018년 7월 2일 검색.

1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2958224>, 2018년 7월 2일 검색.

하여 출판한 경우이다. 2015년 이라크 망명 작가 알리 바드르(علي بدر)¹⁴⁾의 지중해 여행 에세이인 『한밤의 지도』(خرائط منتصف الليل, 김정아)¹⁵⁾가 번역·출간되었다.

2016년에 아랍 작가 중 한국에서 잘 알려진 팔레스타인 작가 사하르 칼리파의 『형상, 성상, 그리고 구약』(صورة وأيقونة وعهد قديم, 백혜원), 『뜨거웠던 봄』(ربيع حار, 김수진)이 번역·출간되었다.

아랍 단편 소설을 제외하면, 1984년~2018년까지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나집 마흐푸즈, 사하르 칼리파, 앳파이브 앳살리흐, 알리 바드르, 아슈라프 이불야지드, 살와 바크르, 알라 알아스와니 등 아랍 작가들의 소설 21권이 번역·출간되었으며, 시집 4권, 동화 2권, 문화기행문 2권, 설화집 2권, 민담 1권, 고전산문 1권이 출판되었다. 2권 이상 소설을 출판한 번역가로는 송경숙, 전완경, 이동은, 문애희, 김능우, 김정아가 있다. 21권의 소설 중 노벨상 수상 작가인 나집 마흐푸즈의 작품이 7종, 팔레스타인 작가 사하르 칼리파의 작품이 4종 포함되어 있어 작가에 대한 편중이 심하게 나타났고 6편을 제외한 나머지 작품은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작품으로 국가에 대한 편중이 심하게 나타났다. 사하르 칼리파는 많은 작품이 한국어로 번역된 덕분에 그의 민족해방투쟁과 여성해방을 주제로 한 문학 작품 세계가 알려져 제2회 이호철 통일로문학상을 2018년 9월에 수상하게 되었다.

3.2 아랍문학의 한국어 번역과 출판에 대한 지원과 출판 경향

한국문학번역원이 전략적으로 한국문학의 아랍어 번역과 출판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반면 한국문학번역원으로부터 지원받은 아랍문학의 한국어 번역과 출판에 대한 지원은 없으며, 다른 단체로부터 지원 받은 경우도 많지 않다. 2007년 출간된 알-자히드의 『수전노』(김정아)가 대산재단에서, 2015년 출간된 알리 바드르의 『한밤의 지도』(김정아)가 실천문학사에서 지원을 받아 출간되었다.

한국의 출판계에서 아랍문학에 관심을 갖고 있는 출판사들을 살펴보면, ‘글

누림’은 탈 서구중심주의 노력의 일환으로 비서구 문학으로 아랍문학에 관심을 두고 있다. 또한 ‘아시아’ 출판사가 2007년 11월 ‘2007 아시아 아프리카 문학 페스티벌-전주’에 참가하며 국내의 아랍문학 연구자 및 작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아랍 여성 문학의 대표 작가, 이집트의 살와 바크르의 첫 장편소설이자 대표작인 『황금 마차는 하늘로 오르지 않는다』를 영문판 증역을 거치지 않고 아랍어 원전에서 직접 우리말로 번역하여 출간하였다. ‘아시아’는 “1986년 첫 단편집 이후 짧은 기간에 가장 촉망받는 아랍 여성 작가로 떠올랐던 살와 바크르의 이번 작품이 노벨문학상 수상작 외에는 제3세계의 문학을 쉽게 접할 수 없는 독자들에게 아랍문학의 정수를 맛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이 책을 소개하고 있다. 이 외에도 출판사 ‘훗’은 아랍, 중동, 이슬람의 삶을 전하는 출판사로 자처하고 있다. 출판사의 이름도 아랍의 민중재인 훗훗(후투티, طائر الهمد)에서 따왔고 공동 운영자인 성혜란씨는 인터뷰에서 “요르단, 이라크, 팔레스타인 등을 오가며 그들의 불안한 삶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한국에 왜곡되어 있는 아랍과 중동의 이미지를 바꾸어보고자 했으며, 그 형태로 가장 적절한 것이 책이라고 생각되어 출판사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출판된 작품 중에 2016년에 출간된 팔레스타인 난민 3세인 레일라 압델라의 『밧다위』(البداوي, 알이따르)가 있다. 이 책은 1948년 이스라엘 국가 수립 이전부터 1980년대까지 작가의 아버지인 아흐마드가 레바논의 팔레스타인 난민 캠프인 밧다위에서 보낸 성장기를 그린 그래픽 노블이다. 이 책은 팔레스타인인들이 인종청소를 당했던 1948년의 나크바부터 70년대 격화되어 가던 레바논 내전 등의 흔들리는 역사 속에서, 아흐마드와 그의 가족이 보여 주는 일상과 삶과 희망에 대한 끈을 놓지 않았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일상을 보여준다. 그러나 아직까지 경제적인 이유를 비롯한 다양한 이유로 ST를 아랍어로 한 아랍문학 번역 단행본이 출간되지 않았으며, 현재 쿠웨이트 작가인 사우드 알사나우시(سعود السنعوسي)의 『ساق البامبو』를 아랍어에서 번역 중에 있다. 이 책은 2012년 쿠웨이트 국가 장려상, 2013년 국제 아랍소설상을 수상하였다.

2011년에 출간된 알라 알아스와니의 『야쿠비안 빌딩』(김능우) 2002년~2007년간 아랍 세계에서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고 이후 영화 및 텔레비전 드라마로 제작되었으며 20여 개 언어로 번역되었다. 그 후 여러 나라의 문학상을 휩쓸면서 그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14) 2001년 『파파 사르트르』로 이라크 정부의 문학상 수상. 2002년 『가족의 겨울』로 아랍에미리트연합의 문학창작상 수상. 2008년과 2009년 아랍부커상 후보.

15) 2009년 이븐 바투따 상 수상

2012년에 번역·출간된 왈리드 따히르 『김은 집』(공지현)과 아마니 알아슈마 위의 『날아라, 연아!』(공지현)도 아랍어권의 좋은 어린이책에 주는 상인 에티살라트 아랍어린이문학상 2회와 3회 수상작이다.

2016년에 번역·출간된 사하르 칼리파의 『날형상, 성상, 그리고 구약!』(백혜원)도 나집 마흐푸즈 문학상 수상작이다.

2018년에 아흐마데 사다위(أحمد سعداوي)의 『바그다드의 프랑켄슈타인』(فرانكشتاين فى بغداد, 조영학)이 번역·출간되었다. 이 책은 2014년 국제 아랍소설상 수상, 2017년 프랑스 판타지 그랜드상 수상, 2018년 맨부커 인터내셔널상 최종후보작으로 영어를 매개어로 한국어로 번역되었다.

이와 같이 아랍문학의 한국어 번역 작품은 대부분 나집 마흐푸즈의 『우리 동네 아이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작품들이 문학상을 수상하였거나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작품들이었다. 번역가나 출판 관계자는 수상작품이나 현지 베스트셀러 작품인 경우 객관적으로 작품성이나 대중성이 검증되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러한 작품들을 선호하게 된다.

그러나 수상 작품들이나 베스트셀러 작품들은 대부분 이미 영어나 프랑스어로 번역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2018년 일부 아랍어 번역가들이 아흐마데 사다위의 『바그다드의 프랑켄슈타인』을 번역 후보작으로 검토 중에 있었는데 영어를 매개어로 빠르게 출간되었다. 이제 아랍 작품 번역은 아랍문학이나 아랍어 전공자들 간에 번역 경쟁이 아닌 다른 언어 번역가들과 경쟁해야 할 시기가 도래한 것 같다.

3.3 통번역대학원 한아과 석사과정 번역 논문

1990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한아과 졸업생들이 석사 논문으로 장편에서 단편에 이르기까지 많은 작품을 번역하였다. 물론 일부 학생들은 타대학원 석사 논문과 같이 특정 주제에 대한 논문을 쓰기도 하고, 특정 분야의 전문용어에 관련된 논문을 쓰기도 하였다. 앞에 소개한 바와 같이 2014년에 출간된 타예브 살리호의 『북으로 가는 이주의 계절』이 1990년 통번역대학원 석사 번역 논문을 개정하여 출간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석사과정 번역 논문은 아랍문학에 관심이 있는 출판사들에게 중요한 참고자료로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총 논문 편수는 확인이 안 된 자료를 제외하고 135편에 달한다. 아랍어에서 번역된 아랍 문학작품이 40여 편인 점을 고려하면 놀랄만한 성과이다. 졸업논문의 작품을 분류해 보면 23명이 이집트 작가, 6명이 시리아 작가의 작품을 번역하여 이집트와 시리아 국가에 대한 편중이 심하게 나타났고, 나집 마흐푸즈와 타우피끄 알하킴과 같이 유명한 작가에 편중이 나타났다.

본 목록에 표기된 아랍 작가 인명의 한국어 표기와 한국어 제목은 논문에 명기된 바를 그대로 따랐다. 향후 이렇게 소개된 작품 중 숨어있는 귀한 작품들이 빛을 보게 되길 기대해 본다.

<표 1>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한아과 석사 번역 논문 목록

| 번호 | 졸업 년도 | 이름 | 논문제목 | 원작가 및 국가 | 국가 |
|----|----------|-----|---------------------------------|--------------------------|-----|
| 1 | 1990 | 이상숙 | 앗 파이브 찰리호의 북으로 향하는 이주의 계절 번역 연구 | الطيب الصالح (1929-2009) | 수단 |
| | | | 소설 한국어 제목 | 소설 아랍어 제목 | |
| | | | موسم الهجرة إلى الشمال | 북으로 향하는 이주의 계절 | |
| 2 | 1992 | 이상철 | 야호야 학끼의 『성자의 등불』 번역 연구 | يحيى العنفي (1905-1995) | 이집트 |
| | | | قنديل أم هاشم | 성자의 등불 | |
| 3 | 1992 | 김재희 | 타우피끄 알하킴의 희곡 『동굴속의 사람들』 번역 연구 | توفيق الحكيم (1898-1987) | 이집트 |
| | | | أهل الكهف | 동굴속의 사람들 | |

석사 번역 논문 목록 전체를 본고 마지막에 <부록1>로 첨부한다.

4. 한국문학의 아랍어 번역에 관한 고찰

4.1 한국문학의 아랍어 번역 현황

번역가 개인의 목적으로 시작된 아랍문학의 한국어 번역과 달리 한국문학의 아랍어 번역은 한국문학번역원의 지원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05년 김동인 외 한국 대표작가들 작품으로 구성된 한국대표단편선(أمي والحب الراحل وقصص)

أخرى, 조희선/이마드 알딘 자우하르)이 번역되어 레바논에서 출판되었다. 다음은 2005년에서 2017년까지 한국문학번역원 등에서 지원된 번역된 작품 목록이다.

〈표 2〉 한국문학번역원등에서 지원을 받아 번역된 한국문학 작품 목록

| 원작명 | 원작가명 | 번역가명 | 아랍어명 | 출간년도 |
|----------------|-------|-----------------------------------------------------|--------------------------------------------------|------|
| 1 한국 대표단편선 | 김동인 외 | 조희선/ 이마드 알 딘 자우하르 | أمي والحب الراحل وقصص أخرى من الأدب الكوري | 2005 |
| 2 현대시선 | 김소월 외 | 김종도 | قصائد من كوريا الجنوبية | 2006 |
| 3 부초 | 한수산 | 이영태/ 이브라힘 압둘 마지드자와 | العشب العائم | 2006 |
| 4 삼대 | 염상섭 | 공지현/ 라샤 앳사이드 살리흐 | الأجيال الثلاثة | 2006 |
| 5 천둥소리 | 김주영 | 최진영 | صوت الرعد | 2006 |
| 6 춘향전 | 미상 | 이동은 | شئون هيانج: من القصص الشعبي الكوري | 2007 |
| 7 만인보 | 고은 | 최진영 | ألف حياة وحياة | 2008 |
| 8 남과 북 | 고은 | 김종도/ 마흐무드 아흐마드 압둘 가파르 | أمياكن خالدة | 2011 |
| 9 엄마를 부탁해 | 신경숙 | 아프난 무함마드 싸우드 알딘 | أرجوك اعن بأمي | 2011 |
| 10 날개 | 이상 | 네예라 나슈아트(Neyera Nashaat) | الأجنحة | 2011 |
| 11 치숙 | 채만식 | 네예라 나슈아트(Neyera Nashaat) | عمي البريء | 2012 |
| 12 구운몽 | 김만중 | 왈라 마지드 무함마드 쿠라쉬(Walaa Maged Mohamed Kourashy) | حلم السحاب | 2012 |
| 13 상행 | 김광규 | 조희선/ 마흐무드 아흐마드 압둘 가파르 | رحلة إلى سيول | 2013 |
| 14 김소월 시선집 | 김소월 | 이동은/ 살라흐 이드리스(Salah Edris) | ديوان كم سو وال | 2013 |
| 15 메밀꽃 필 무렵 | 이효석 | 무함마드 함디(Mohamed Hamdy) | عندما تفتح زهور الحنطة السوداء | 2013 |

| | | | | | |
|----|------------------------------|----------|------------------------------------------|-------------------------|------|
| 16 | Collection of Korean Stories | 최서해, 이익상 | 아만 알라 아이만 무함마드(AMAN ALLAH Ayman Mohamed) | مختارات من الأدب الكوري | 2013 |
| 17 | 아득한 성자 | 조오현 | 이슈라프 이부 알야지드(إشرف أبو اليزيد) | قديس يحلق بعيدا | 2013 |
| 18 | 달갈 속의 생 | 김승희 | 마흐무드 아흐마드 압둘 가파르 | الحياة داخل بيضة | 2017 |
| 19 | 채식주의자 | 한강 | 마흐무드 아흐마드 압둘 가파르 | النباتية | 2017 |

총 19종 중 고전 산문 『춘향전』 1종과, 『현대시선』, 『만인보』, 『남과 북』, 『상행』, 『김소월 시선집』, 『아득한 성자』, 『달갈 속의 생』 등 시 7종, 나머지 소설이 11종이다. 한국문화예술평론진흥원에서 『현대시선』의 번역 및 출판을 지원하였고, 이집트국립번역원에서 『춘향전』과 『만인보』에 대해 번역 및 출판 지원이 이루어졌다. 나머지 16종에 대해서 한국문학번역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 이상의 『날개』, 채만식의 『치숙』, 김만중의 『구운몽』,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최서해, 이익상의 『Collection of Korean Stories』 등 6편은 저작권 계약까지만 지원하였다.

번역은 『현대시선』, 『천둥소리』, 『춘향전』, 『만인보』 등 4종은 한국인이 단독으로 번역을 진행하였고, 저작권을 계약한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 이상의 『날개』, 채만식의 『치숙』, 김만중의 『구운몽』,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최서해, 이익상의 『Collection of Korean Stories』 등 6종과 조오현의 『아득한 성자』, 김승희의 『달갈 속의 생』, 한강의 『채식주의자』 등 3종을 합한 총 9종은 아랍인 단독으로 번역이 이루어졌다. 김동인 외 『한국 대표단편선』, 한수산의 『부초』, 염상섭의 『삼대』, 고은의 『남과 북』, 김광규의 『상행』, 김소월의 『김소월 시선집』 6종은 한국인과 아랍인이 공동으로 번역에 참여하였다.

이 외에도 한국문학번역원의 공식 지원을 받지 않고 아랍어로 번역된 한국 문학 작품이 있다.

〈표3〉 공식적이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한국문학의 아랍어 번역 목록

| 번호 | 원작명 | 원작가명 | 번역가명 | 아랍어명 | 출간년도 |
|----|-----------------------|--------------|------------------------|-------------------------------------|------|
| 1 |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콩 | 조세희 | 최진영 | الفقم يطلق الصغيرة | 2008 |
| 2 | 아우와의 만남 | 이문열 | 김정명 | موعد مع أخي | 2008 |
| 3 | 장난감 도시 | 이동하 | 문지영 | المدينة للعبة | 2008 |
| 4 | 만인보 | 고은 | أشرف أبو اليزيد | ألف حياة وحياة للشاعر الكوري | 2012 |
| 5 | 마당을 나온 암탉 | 황선미 | سعيد الحسنية | الدجاجة التي حملت بالطيران | 2014 |
| 6 | 한국 여성 문학 8개 단편집 | 박완서 신경숙 등 | رضوى أشرف | الأنامل القرمزية حكايات من كوريا | 2016 |
| 7 | 한국 전래 동화 단편집 | | حسن عبده | حكايات كورية بين نال ين نال | 2017 |
| 8 | 바리데기 | 황석영 | علي عبد الأمير صالح | الأميرة باري | 2017 |

총 8종 중 고은의 『만인보』 1종만 시이고 나머지 7종은 소설이며, 조세희의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콩』, 이문열의 『아우와의 만남』, 이동하의 『장난감 도시』 3종은 이집트 국립번역원의 지원을 받았고, 나머지 5종은 지원 여부가 언급되어 있지 않다. 번역도 조세희의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콩』, 이문열의 『아우와의 만남』, 이동하의 『장난감 도시』 3종은 한국인이 단독 번역하였고, 나머지 5종은 모두 아랍인이 단독 번역하였다. 아랍인 번역가 5명 중 고은의 만인보를 번역한 이슈라프 아불 야지드(أشرف أبو اليزيد)는 조오현의 『아득한 성자』를 2013년에 단독으로 번역하였다. 아랍 번역가들이 한국어에서 아랍어로 직접 번역했는데, 영어나 프랑스어를 매개어로 번역을 했는지 밝히고 있지 않아 한국어에서 아랍어로 직접 번역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다.

4.2 코리아나에 소개된 한국문학 작품 번역 현황

한국교류재단에서 계간지로 발행되는 『코리아나(KOREANA)』는 한국의 문화·예술을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전문 계간지로서 세계인들의 한국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발간되고 있다. 1987년 창간된 코리아나는 한국 문화·예술 분야를 비롯한 여러 분야와 문학작품 등을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다. 현재 아랍어로 종이책 발간되어 160여 개국에 배포되고 있으며, 웹진 및 전자책으로도 발간되고 있다. 코리아나는 한국의 전통과 현대 문화·예술을 균형 있고 체계적으로 다루어 국내외 독자들로부터 한국 문화 이해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¹⁶⁾

한국문학의 단편 소설은 프랑스어로 약 250여편(김정연 2015) 번역이 이루어졌다. 그중 코리아나에서 번역되어 소개된 작품들이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다. 이에 반해 아랍어로 번역된 작품들은 아직 출판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문학에 목말라하고 있는 아랍 독자라면 코리아나에서 접하는 한국문학은 단비와 같을 것이다. 따라서 아랍시장에 한국문학이 단행본으로 소개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랍어 본에서 매호 1편씩 번역되어 아랍 독자들에게 소개되고 있는 한국문학 작품을 데이터화 하여 제시한다. 번역된 한국 현대 단편 소설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4〉 코리아나에 번역 수록된 한국 현대 단편 소설 목록¹⁷⁾

| 연도 | 계절 | 작가 | 한국어제목 | 아랍어제목 |
|------|----|-----|------------------|-------------------------------------|
| 2018 | 봄 | 윤성희 | 모서리 | الزاوية |
| | 여름 | 강영숙 | 불치 | غير قابل للشفاء |
| 2017 | 봄 | 구효서 | 화양연화 | أجمل أيامنا |
| | 여름 | 이장욱 | 절반 이상의 하루오 | أكثر من نصف هاروه |
| | 가을 | 김연수 | 시월의 미, 칠월의 술 | حبي في شهر أبريل، صؤول في شهر يوليو |
| | 겨울 | 김애란 | 나는 편의점에 간다 | أنا أذهب إلى السوبر ماركت |
| 2016 | 봄 | 이제하 | 나그네는 길에서도 쉬지 않는다 | الانتقال |
| | 여름 | 이영훈 | 모두가 소녀시대를 | الجميع يحب فرقة جيرلز جنيريشن |

16) <http://www.kf.or.kr/?menu=3935>, 2018년 7월 20일 검색.

17) <https://koreana.or.kr/home/homeIndex.do>, 2018년 7월 20일 검색.

| | | | 중이해 | |
|------|----|-----|----------------|--------------------------------|
| | 가을 | 김미월 | 프라자 호텔 | فندق بلازا |
| | 겨울 | 김종옥 | 거리의 마술사 | ساحر الشارع |
| 2015 | 봄 | 조해진 | 빛의 호위 | تحت حراسة الأضواء |
| | 여름 | 최은미 | 창 너머 겨울 | شتاء ما وراء النافذة |
| | 가을 | 김숨 | 국수 | معكرونة الكوكسو |
| | 겨울 | 김채원 | 서산 너머에는 | ما وراء الجبل الغربي |
| 2014 | 봄 | 박찬순 | 무당벌레는 꼭대기에서 난다 | الخنفساء تطلق من القمة |
| | 여름 | 윤고은 | 요리사의 손톱 | ظفر الطباخ |
| | 가을 | 김경옥 | 위험한 독서 | قراءة خطيرة |
| | 겨울 | 김이환 | 너의 변신 | شخصية |
| 2013 | 봄 | 박완서 | 그 남자네 집 | منزل ذلك الرجل |
| | 여름 | 이장욱 | 이반 멘슈코프의 춤추는 집 | الرقص في غرفة إيفان ميشيكوف |
| | 가을 | 백가흠 | 그런, 근원 | كوتون، على هذا النحو |
| | 겨울 | 이현수 | 장미나무 식기장 | خزانة الأواني من خشب الورد |
| 2012 | 봄 | 권지예 | 꽃게 무덤 | مقبرة الكالوريا |
| | 여름 | 김도연 | 이별전후사의 재인식 | صورة مجا |
| | 가을 | 김연수 | 뉴욕제과점 | مخبز نيويورك |
| | 겨울 | 심상대 | 묘사총 | القط والشعبان والقبير |
| 2011 | 봄 | 정한아 | 마태의 맛 | طعم الماتي |
| | 여름 | 윤대녕 | 탱자 | ثمرة اليوسفي المر بقلم الكاتبة |
| | 가을 | 김미월 | 서울 동굴 가이드 | مرشد كهف سيول |
| | 겨울 | 전경린 | 첫사랑 | الحب الأول |
| 2010 | 봄 | 정지아 | 봄빛 | ضوء الربيع |
| | 여름 | 박완서 | 공항에서 만난 사람 | لقاء في المطار |
| | 가을 | 이승우 | 전기수 이야기 | قصة الحكواتي |
| | 겨울 | 신경숙 | | |
| 2009 | 봄 | 조경란 | 풍선을 샀어 | استريت بالونا |
| | 여름 | 천운영 | 바늘 | الإبرة |
| | 가을 | 김중혁 | 악기들이 도서관 | مكتبة الآلات الموسيقية |
| | 겨울 | 이효석 | 메밀꽃 필 무렵 | حينما تفتح زهور الحنطة السمراء |

5. 아랍어 문학 번역에 대한 고찰

5.1 아랍문학의 한국어 번역 고찰

아랍문학의 한국어 번역은 단편을 제외한 약 33종이 ST 아랍어에서 한국어로 번역되었다. 그 중 노벨상 수상 작가인 나집 마흐푸즈의 작품이 7종, 팔레스타인 작가 사하르 칼리파의 작품이 4종으로 총 번역 종류에 비해 특정 작가의 작품이 많이 번역되었으며 작가의 국적을 살펴보면 이집트 작가 작품이 15종, 팔레스타인 작가 작품이 6종으로 두 국가에 대한 편중 현상이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작가와 국가를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 번역가로는 송경숙이 6종, 이동은 5종, 김능우 5종, 문애희 3종, 전완경 2종, 조희선 2종, 김정아 2종으로 나타났다. 활발하게 아랍문학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6명의 작가 중 아랍문학 전공자가 4명, 통번역대학원을 졸업하고 문학을 전공한 사람이 3명으로 나타났다. 번역가가 제한적이고 번역작품이 많지 않은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중에는 아랍문학에 나타나는 문체를 한국어로 번역하기가 어려워서, 아랍문학을 번역해도 출판할 기회가 많지 않아서, 아랍문학을 번역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비되지만 그에 대한 물질적 보상이 적어서... 등등이 있을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통번역대학원을 다니면서 실용번역 학습에 치중하다 보니 문학 작품을 제대로 읽어 볼 기회가 많지 않아 아랍문학에 대한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도 이유일 것이다. 일부 학생들은 석사 번역 논문을 쓰면서 아랍문학에 대해 흥미를 느끼고, 문학번역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말한다.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한아과 석사 번역 논문으로 약 135편의 장편 소설과 단편 소설이 번역되어 있다. 아랍문학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번역가가 많지 않음을 고려해 볼 때, 적극적으로 출판 시장과 논문 번역가들이 초벌 번역이 되어 있는 석사 논문 번역 중 한국 문화에 맞는 적절한 작품을 찾아 한국 독자들에게 다양한 아랍문학 작품을 소개하면 좋을 것 같다. 물론 논문 번역은 출판을 목적으로 하는 번역과 달리 많은 검토와 수정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나집 마흐푸즈의 여러 작품들이 번역되어 출간되었는데도 아랍문학 작품이 대중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고, 아직까지 많은 한국인들이 아랍문학의 대표작으로 『아라비안 나이트』나 『천일야화』, 『신드바드의 모험』 등

을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번역된 아랍문학 작품도 그 주제가 전쟁과 연계되어 있고 아랍 국가가 처한 비극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한국 독자들의 아랍문학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아랍문학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국가와 작가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 독자에 적합한 아랍문학 작품 발굴이 필요하고 적극적인 아랍문학의 한국어 번역 활동이 필요하다.

5.2 한국문학의 아랍어 번역 고찰

한국문학의 아랍어 번역은 한국문학번역원이 주축이 되어 번역 및 출판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진행된 번역은 7종에 불과할 정도로 그 수가 너무 제한적이다. 이러한 활동은 우수한 한국문학을 아랍 세계에 알리기에는 부족하며, 아랍세계에서 한국문학의 보편적인 대중성을 확보하기에도 부족하다고 본다.

최근 한국의 번역가들은 가시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번역 전략을 밝히기도 한다. 대표적인 작가로 『엄마를 부탁해』와 『마당을 나온 암탉』을 번역한 김지영씨가 대표적이다. 영어로 번역된 『엄마를 부탁해』가 해외에서 대중적인 인기를 끌자 미디어와의 인터뷰도 많이 하고 번역에 대한 자신의 견해와 자국화 번역전략을 밝히기도 하였다. 이러한 번역가의 가시성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번역가의 중요성과 역할을 인정하여 맨부커 상은 작가와 번역가에게 동시에 상을 수여한다.

이에 반하여 아랍 국가의 번역가들은 비가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번역서의 경우 번역가에 대한 소개나 번역가의 번역전략 등 번역가의 목소리를 발견하기 어렵다. 『엄마를 부탁해』를 번역한 아랍번역가 *أفنان محمد سعد الدين*과 『마당을 나온 암탉』을 번역한 아랍번역가 *السعيدة الحسنية*의 경우 번역 연구를 진행하면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번역 작품 소개 이외에 개인적인 이력이나 연락처를 찾을 수가 없었다. 두 번역가 모두 공공 번역을 비롯한 인문학 서적, 문학작품 등 몇 십 권의 번역서가 있음에도 온라인 매체나 SNS에도 찾을 수가 없었다.

다른 한편, 2011년 이전에는 주로 아랍어나 아랍문학 전공자인 한국인이 아랍어에서 한국어로 직접 번역하거나 한국인과 아랍인이 협업하여 번역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2011년에 접어들면서 아랍인이 단독으로 한국문학을 아랍어로 번역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아랍인 번역가들이 영어와 한국어를 매개어로 번역을 하였는지, 한국어에서 아랍어로 직접 번역하였는지 대부분 밝히고 있지 않아 확인되지는 않았다.

아랍 세계에서 2011년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가 영어를 매개어로 번역·출간되어 아랍 독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회원수가 약 150,000명인 책을 읽고 서평을 올리거나 토론을 하는 온라인 독서클럽 *abjjad*¹⁸⁾에 올라온 『엄마를 부탁해』에 대한 643명 독자의 서평을 분석하였다.

아랍어 번역본이 2011년에 출판된 점을 고려할 때 서평의 수가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랍 독자들의 생각을 읽기에는 충분한 숫자라고 본다. 많은 독자들이 처음으로 한국 소설이나 한국 문화를 접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강력히 추천한다고 의견을 밝히고 있다(곽순례 2017: 23). 의견을 올린 아랍 독자들 대부분이 엄마의 인생, 가족과 엄마, 엄마의 소중함, 엄마의 희생, 가족의 소중함, 슬픔, 감동, 인간적인 모습 등의 느낀 점을 올린 것으로 볼 때 아랍어로 번역된 한국어 소설을 읽고 한국어 소설의 감동을 동일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작가가 한국인이지만 느끼는 감정은 똑같다’라고 밝힌 독자의 의견이 인상적이다. 그렇지만 직설적으로 ‘번역이 엉망이다’, ‘일부 내용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서평이 올라온 것으로 보아 번역이 잘되어 소설을 읽고 감동받은 것은 아니며, 사람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소설의 주제 덕분인 것으로 판단된다.

요르단을 비롯한 아랍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요르단 언론인인 *إبراهيم غرايبة*는 2004년에 창간된 요르단 일간지 ‘*الغد*’에 2015년 8월 23일 게재한 서평¹⁹⁾에서 작가와 작품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하고 “소설을 통해 알게 된 것은 한국이 독재정권이 통치하던 가난한 농업국가에서 산업 선진국가가 되면서 한국의 사회와 문화가 변했고, 이로 인해 노인들이 그 값을 크게 치렀고 자식들은 부모세대와 삶의 방식을 잃어버렸다. 이 소설은 요르단에도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생

18) <https://www.abjjad.com/>, 2017년 01월 31일 검색.

19) <http://alghad.com/articles/888826-%D8%A3%D8%B1%D8%AC%D9%88%D9%83-%D8%A7%D8%B9%D8%AA%D9%86-%D8%A8%D8%A3%D9%85%D9%8A>, 2017년 3월 6일 검색.

각한다. 경제나 산업이 동반 성장되지는 않았지만 요르단은 사회적으로 크게 변화를 겪었고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지만 오늘날 노인들이 그 값을 치르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서평으로 보아 비록 번역이 잘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곽순례 2017: 24).

이와 같이 『엄마를 부탁해』는 아랍 독자들로부터 작품성과 대중성에서 인정을 받았으나 번역에서는 혹평이 이어졌으며 심지어 4장 번역이 누락된 채 출간이 되었다. 4장 내용이 아랍 사회의 가치나 이슬람 가치에 맞지 않아 아랍 번역가가 의도적으로 번역을 누락시킨 건지 다른 이유인지 알 수는 없다.

또 다른 작품으로 황선미의 동화 『마당을 나온 암탉』역시 영어를 매개어로 아랍어로 번역되었다. 아랍어 번역가 سعيد الحسنية는 온라인 상에서 검색하면 번역한 작품이 20여권이 나타나 는 것으로 보아 활발하게 번역작업을 하는 작가로 보여지며, 국가 기관에서 발행하는 도서를 번역한 것으로 보아 공신력이 있는 번역가로 판단된다. 서평으로는 ‘조지오웰의 ‘동물 농장’과 문체가 유사한데 아시아의 특성이 나타나 있으며, 아동에게 맞는 소설이면서 동시에 성인에게도 재미있는 소설이다’, ‘구성이 간단하지만 깊은 의미가 담겨있다’, ‘깊은 감명을 받았다’, ‘꿈에는 한계가 없다’, ‘꿈을 추구하고, 사회의 시각을 거부하고, 모험에 뛰어드는 이야기다’ 등이 나와 있다.

아랍어 번역본인 『الدجاجة التي تحلم بالطيران』의 책 표지 제목에 THE HEN WHO DREAMED SHE COULD FLY 가 병기되어 있고, 저작권을 표시한 부분에 A Penguin Random House Company 와 계약되었음이 표시되어 있어 아랍어 번역본이 영어 번역본에서 번역된 것으로 추정이 되었다. 그런데 주인공인 ‘잎싹’은 영어 본에는 의미 등가어인 ‘Sprout’로 번역되었으나, 아랍어에서는 한국어 발음인 “بِسَّاك”으로 음역되었고, 영어에 의성어가 생략되었는데 아랍어에는 한국어에 맞추어 의성어가 번역된 곳이 여러 곳에서 나타났다. 이로 보아 한국어를 참조로 하여 ST 영어에서 번역된 것으로 추정된다(곽순례 2018: 117).

『엄마를 부탁해』와 『마당을 나온 암탉』두 작품을 연구를 위해 한국어 원문과 아랍어 원문을 비교 분석한 결과 『엄마를 부탁해』는 영어를 매개어로 번역이 진행되어 원문과 다른 내용과 오역이 많이 나타났다. 심지어 흥어(skate)를 생선이 아닌 빙판위에서 타는 스케이트로 번역이 이루어졌다. 다행인 것은 번역에 대한 악평에도 작품평은 좋게 나왔다. 엄마라는 보편적인 주제 덕분으로

판단된다. 『마당을 나온 암탉』은 번역평과 작품평이 모두 좋게 나타났다. 이 두 작품을 비교해 보았을 때 아랍인 번역가가 한국어 원문의 확인 없이 매개어에만 의존하여 번역이 이루어지면 완전히 다른 의미로 작품 내용이 전달될 가능성이 있으며, 한국 문화의 왜곡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한국문학의 이상적인 번역은 원문 언어 한국어를 기반으로 번역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한국인 번역가와 아랍인 번역가가 협업하여 공동으로 한국문학 작품을 아랍어로 번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진행될 경우 한국의 문화와 정서, 고유의 문화특정 어휘, 관용어, 배경지식이 보완이 되고, 자연스러운 아랍어 표현이 보완이 되어 좀 더 경쟁력이 있는 한국문학의 아랍어 번역 작품이 아랍 독자들에게 소개될 수 있을 것이다.

6. 결론

아랍문학의 한국어 번역과 한국문학의 아랍어 번역 현황을 고찰한 결과 가장 두드러진 과제는 양방향 번역·출간 건수가 아랍어가 가지는 세계적인 위상에 비해 적다는 것이다. 1988년 이집트의 소설가 나지브 마흐푸즈가 아랍 세계에서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여 아랍문학이 한국 독자에게서도 관심을 끄는 기회가 되었으나 그 관심이 오래가지 않았으며 지금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첫째, 아랍문학을 한국어로 번역·출간한 단행본이 적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 독자들이 아랍문학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다. 둘째, 현재 아랍 번역가의 개인적인 관심이나 노벨문학상 등 문학상 수상작에 국한된 아랍문학 작품들이 번역되어 일부 작가와 국가들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독자들에게 아랍문학의 다양성이 알려지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 독자들은 아랍문학에 대해 식상하고 더 이상의 무엇인가를 기대하지 않게 되었다. 셋째, 아랍문학 작품을 알리려는 활동과 노력이 부족했다.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작품성을 인정받은 많은 아랍 작가와 작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독자에게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위와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랍문학의 번

역·출간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아랍어 전문 번역 인력이 필요하다. 현재 활동하는 아랍어 번역가들은 아랍문학 전공자들이나, 통번역대학원을 졸업하고 아랍문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다행인 것은 2018년 1학기부터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에 이미 개설된 한영과를 제외한 7개 학과에 문학 번역 교과목이 선택과목으로 개설되었다. 이를 통해 예비 전문 번역사들에게 문학작품을 접하면서 문학의 가치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향후 저작권 계약, 출판, 판매까지 전 과정을 다 진행할 수 있는 아랍문학 번역 전문 인력이 배출하기 위하여 출판 활동이 활발한 다른 학과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미래의 아랍어 번역가들에게 번역가로서의 자긍심, 미래의 청사진, 일의 가치와 보람을 제시하여 아랍어 전문 인력이 아랍문학 번역 분야에서 활동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아랍문학 전공자와 아랍어 번역 전공자들이 함께 아랍문학 번역 동아리를 활성화하여 현재 아랍문학의 한국어 번역 현황을 논의하고, 아랍문학 작품 중 번역 후보작을 시대별, 국가별, 장르별, 작가별로 목록을 작성하여, 적극적으로 번역 후보작품을 발굴하고, 공동 번역 작업을 통해 보다 신속하게 아랍문학 작품을 소개하고, 다양한 작가와 다양한 국가의 아랍문학을 한국 독자들에게 알린다.

그동안 노벨상 수상작에 치우쳐 있던 아랍 문학 작품 선정에서 한국 독자들이 선호하는 아랍 작품과 작가를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랍에는 다양한 문학상이 있으므로 시의성을 고려하여 이러한 문학상의 수상작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예를 들면 사우디아라비아의 킹압둘라 국제 번역상(جائزة الملك عبد الله بن عبدالعزيز العالمية للترجمة)²⁰이 있고, 하마드 국왕 번역상(جائزة الشيخ حمد للترجمة والتفاهم الدولي)²¹, 아랍 부커 상으로 여겨지는 UAE의 아랍 국제 소설상(الجائزة العالمية للرواية العربية)²² 등이 있다. 수상 작품 뿐만 아니라 후보작까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아랍 국가의 국가번역원과 협조를 하는 방법도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이집트 문화부 산하의 국가번역원(المركز القومي للترجمة)²³과

아랍연맹 사무국 산하에 아랍최고 번역원(المعهد العالي العربي للترجمة)²⁴이 있다.

또한 기존에 번역되었으나 출간되지 않은 많은 아랍문학 작품들을 적극 활용하여 번역기간과 노력을 단축한다면 보다 더 빠른 시일내에 많은 작품들이 한국 독자에게 소개될 수 있으리라 본다.

셋째, 아랍문학을 한국 독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우선적으로 고전부터 현대 문학 작품에 이르기까지 작품성과 대중성이 있는 작품과 작가들을 적극 홍보하고, 그 중에서도 한국 정서에 맞는 작품을 발굴하여 소개함으로써 아랍문학에 대한 한국 독자의 관심을 높인다. 또한 한국아랍문학포럼, 아랍 작가와의 만남, 아랍어 번역가들의 미디어 활동 등과 같이 다양하게 아랍문학을 홍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한편 한국문학의 아랍어 번역은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바와 같이 한국문학번역원이 중심이 되어 번역과 출판을 지원하고, 그 외 다른 기업이나 기관에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번역활동이 활발해 지리라 생각된다. 물론 지원과는 별도로 번역가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번역 활동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K-드라마와 K-Pop의 인기로 인해 아랍세계에 부는 한류의 열기가 한국어 학습 열기로 이어지고,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면, 보다 더 많은 한국문학의 아랍어 번역 환경이 조성될 수 있으리라 본다. 한국문학의 아랍어 번역 작업은 한국인이나 아랍인의 단독 작업보다 한국인과 아랍인이 협업하여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를 위해 한국문학번역원이나 한국아랍어 아랍문학회와 같은 아랍 관련 학회에서 학술대회에 한국문학 번역에 참여했던 번역가들을 초청하거나, 아랍에서 한국어를 전공하여 미래에 번역가가 될 수 있는 아랍인들을 초청하여 한국인 아랍어 번역가와 만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마련하면 공동 번역 협력의 기반이 만들어 질 것으로 판단된다.

20) <http://www.translationaward.org/>

21) <http://hta.qa/ar/>

22) <https://www.arabicfiction.org/ar>

23) <http://nct.gov.eg/>

24) http://isat-al.org/Main_Ar/

참고문헌

- 곽순례 (2017) 「아랍어 번역에 나타난 문화 어휘에 관한 고찰」, 『아랍어와 아랍문학』 21(3): 1-27.
- 곽순례 (2018) 「『마당을 나온 암탉』의 아랍어 번역에 관한 고찰」, 『아랍어와 아랍문학』 22(3): 93-120.
- 김능우(2011) 「국내 중동문학의 번역 상황 고찰: 아랍 문학을 중심으로, 1970년대 초부터 2011년 5월까지」, 『중동연구』 30(2): 27-59.
- 김정연(2015) 「La traduction d'oeuvres littéraires coréennes en français: son bilan à partir des années 2000 et ses perspectives(한국문학작품의 프랑스어 번역과 출판 현황-200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19(4): 145-212.
- 김중도(2005) 「한국의 아랍어 번역현황과 과제」, 『번역학연구』 6(2): 1-20.
- 나왈 사우다위 외(문애희 역) (2004) 『천국에도 그 여자의 자리는 없다』, 서울: 열린책들.
- 나집 마흐푸즈(문애희 역) (2004) 『우리 동네 아이들』, 서울: 열린책들.
- 나집 마흐푸즈(문애희 역) (1988) 『포로의 옷』, 서울: 지식산업사.
- 나집 마흐푸즈(문애희 역) (2004) 『우리 동네 아이들』, 서울: 열린책들.
- 사하르 칼리파(김수진 역) (2016) 『뜨거웠던 봄』, 서울: 케이포북스.
- 사하르 칼리파(백혜원 역) (2016) 『형상, 성상 그리고 구약』, 서울: 케이포북스.
- 사하르 칼리파(송경숙 역) (2005) 『가시선인장』,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사회만 (2000) 『아랍의 언어와 문학』, 광주: 조선대학교출판부.
- 송경숙 (편저) (1984) 『아랍단편선』,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신경숙(2009) 『엄마를 부탁해』, 서울: 창비.
- 아흐메드 사다위 (조영학 역) (2018) 『바그다드의 프랑켄슈타인』, 서울: 더봄.
- 알리 바드르(김정아 역) (2015) 『한밤의 지도』, 서울: 실천문학사.
- 양희정 (2018) 『아랍문학에 나타난 상호텍스트의 한국어 번역 전략 및 수용성 연구: 나집 마흐푸즈의 『우리 동네 아이들』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븐 바투타(정수일 역) (2001) 『이븐 바투타 여행기』, 서울: 창비.

- 이상원(2004) 「출판 번역 현황에 대한 연구-편집자 면접 조사를 바탕으로」, 『번역학연구』 5(1): 133-144.
- 이창수, 임향옥 (편역) (2013) 「통번역학 연구 현황과 향후 전망 II」, 223-247 서울: 한국문화사.
- 알-자히드(김정아 역) (2007) 『수진노』, 서울: 문학과지성사.
- 황선미(2000) 『마당을 나온 암탉』, 서울: 사계절.
- Kyung-sook Shin (2011) *Please Look After Mom*, Knopf, (trans, Chi-Young Kim), New York, Vintage Books.
- Sun-mi, Hwang(2013) *The HEN WHO DREAMED SHE COULD FLY*, (trans, Chi-Young Kim), New York, Penguin Books.
- صن - مي هوانغ(ترجمة إلى العربية: سعيد الحسينية)، الدجاجة التي تحلم بالطيران، الدار العربية للعلوم ناشرون، ٢٠١٤
كيونج سوک شن(ترجمة إلى العربية: أفنان محمد سعد الدين)، أرجوك اعتن بأمي، الدار العربية للعلوم، ٢٠١١

<인터넷 자료>

- <http://alghad.com/articles/888826-%D8%A3%D8%B1%D8%AC%D9%88%D9%83-%D8%A7%D8%B9%D8%AA%D9%86-%D8%A8%D8%A3%D9%85%D9%8A>, 2017년 3월 6일 검색.
- <http://hta.qa/ar/>
- http://isat-al.org/Main_Ar/
- <https://koreana.or.kr/home/homeIndex.do?zineInfoNo=0010&pubYear=2018&pubMonth=SUMMER&pubLang=Arabic>. 2018년 6월 17일 검색.
- <http://nct.gov.eg/>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611201732071&code=960205, 2018년 7월 2일 검색.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2958224>, 2018년 7월 2일 검색.
- <https://www.abjjad.com/>, 2017년 01월 31일 검색.

- <https://www.arabicfiction.org/ar>
- <http://www.kf.or.kr/?menuno=3935>, 2018년 7월 20일 검색.
- <https://koreana.or.kr/home/homeIndex.do>, 2018년 7월 20일 검색.
- <http://www.kpa21.or.kr/>, 2018년 06월 27일 검색.
-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8/08/20/2018082000112.html>, 2018년 08월 21일 검색.
- <http://www.translationaward.org/>

[Abstract]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in the Arabic Translation of Korean Literature and the Korean Translation of Arabic Literature

Gwag, Soon-Lei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statistics data from the Korean Publishers Association shows that among the 9,714 books translated and published into Korean in 2015, the number of Arabic literary works was less than four. The figure attests to the fact that the standing of Arabic literature in Korean translation is far lagging behind the standing of Arabic language and Arabic culture around the world. The Egyptian writer Naguib Mahfouz's winning of the 1988 Nobel Prize for Literature prompted increased attention to Arabic literature from Korean readers and publishing houses, which lasted for a short period of time. Korean publishers, in general, add several Arabic novels in the collections of world literature, instead of printing individual Arabic books for Korean readers. Even if Korean-Arabic translators with a master's degree in translation or those with a diploma in Arabic literature are interested in translating Arabic literary works, it is hard for them to find a publisher as Korean publishing houses prefer translators with a publication experience. Therefore, if graduate schools of translation could help Korean-Arabic translators publish their master's theses or co-translated works, young Korean-Arabic translators might be able to start their literary career. In addition, their introducing various Arabic literary works would contribute to attracting more attention from Korean readers, thus creating a virtuous cycle for translation of Arabic literature.

Meanwhile, the translation of Korean literary works has been limited to the works that receive support from the Literature Translation Institute of Korea. In addition to those works, several short stories have been introduced in the

Arabic version of Koreana, the Korea Foundation's quarterly. As a result, Korean literature has gained little attention in Arabic countries. However, Arabic readers are showing increasing interest in Korean novels thanks to the translation and publication into Arabic of Please Look After Mom and The Hen Who Dreamed She Could Fly in 2011 and 2014, respectively. This trend implies that more studies are needed on the strategies how to discover Korean literary works that would interest Arabic readers and cultivate Korean-Arabic literature translators, Koreans or Arabs, thereby expanding the horizons of Korean literature in the Arabic world.

▶ Key Words: Arabic literature, Korean literature, Korean translation, Arabic translation, Arabic novel

▶ 주제어: 아랍문학, 한국문학, 한국어 번역, 아랍어 번역, 아랍 소설

곽순례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한아과 조교수

gwag@hufs.ac.kr

관심분야: 학습번역, 전문번역, 문학번역, 지역사회통역

논문투고일: 2018년 8월 10일

심사완료일: 2018년 9월 10일

게재확정일: 2018년 9월 27일

〈부록1〉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한아과 석사 번역 논문 목록

| 번호 | 졸업 년도 | 이름 | 논문제목 | 원작가 및 국가 | 국가 |
|----|----------|-----|------------------------------------------|--------------------------------|-----|
| 1 | 1990 | 이상숙 | 앗 파이브 쌀리호의 북으로 향하는 이주의 계절 번역 연구 | الطيب الصالح (1929-2009) | 수단 |
| | | | 소설 한국어 제목 | 소설 아랍어 제목 | |
| | | | موسم الهجرة إلى الشمال | 북으로 향하는 이주의 계절 | |
| 2 | 1992 | 이상철 | 야호야 학끼의 『성자의 등불』 번역 연구 | يحيى الحقى (1905-1995) | 이집트 |
| | | | قنديل أم هاشم | 성자의 등불 | |
| 3 | 1992 | 김재희 | 타우휘끄 알하킴의 희곡 『동굴속의 사람들』 번역 연구 | توفيق الحكيم (1898-1987) | 이집트 |
| | | | أهل الكهف | 동굴속의 사람들 | |
| 4 | 1992 | 이천 | 야호야 학끼의 『단편소설 카드게임 외 2편』 번역 연구 | يحيى الحقى (1905-1995) | 이집트 |
| 5 | 1992 | 임미란 | 알리 아흐마드 바카씨르의 희곡 『샤흐라자드의 비밀』 번역 연구 | علي أحمد باكثير (1910-1969) | 이집트 |
| | | | سنّ شهرزاد | 샤흐라자드의 비밀 | |
| 6 | 1993 | 박인숙 | 따하 후세인의 『알아얌』 에 대한 아-한번역 연구 | طع حسين (1889-1973) | 이집트 |
| | | | الأيام | 알아얌 | |
| 7 | 1994 | 배운례 | 나집 마흐푸즈의 『출세주의자』 번역 연구 | نجيب محفوظ (1911-2006) | 이집트 |
| | | | حضرة المحترم | 출세 주의자 | |
| 8 | 1994 | 배정옥 | 쑤으 알라 이브라힘의 소설 『그 낚새』 번역 연구 | صنع الله إبراهيم (1937-) | 이집트 |
| | | | تلك الراححة | 그 낚새 | |
| 9 | 1994 | 홍성탁 | 타우휘끄 알하킴의 희곡작품 중 『바퀴벌레의 운명』 번역 연구 | توفيق الحكيم (1898-1987) | 이집트 |
| | | | مصير صرصور | 바퀴벌레의 운명 | |
| 10 | 2000 | 이영미 | 타우휘끄 알하킴의 『짜미라와 함디』 번역 연구 | توفيق الحكيم (1898-1987) | 이집트 |
| | | | سميرة وحمدى | 짜미라와 함디 | |
| 11 | 2002 | 박지숙 | 나지브 마흐푸즈 『지도자』 | نجيب محفوظ | 이집트 |

| | | | | | |
|---------------------|-------------------|-----|---------------------------------------------------------------------------|------------------------------------------|-----|
| | | | 서거일』 작품 번역 | (1911-2006) | |
| | | | يوم مقتل الزعيم | 지도자 서거일 | |
| 12 | 2002 | 정선미 | 짜미라 앓잠 Samirah Azzam(1927-1967) 연구: 단편 『팔레스타인 사람』, 『또 한 해』, 『희생의 빵』을 중심으로 | سميرة عزام (1927-1967) | |
| 13 | 2009 | 이유라 | 올파트 알이딜비의 단편작품 번역·연구- 그리고 사탄이 웃는다 외 4편- | الفت الادبي (1912-2007) | 시리아 |
| | | | وشت بها العصافير | 새들이 말해준 것 | |
| | | | من أجلك أنتي | 너를 위해서 | |
| | | | قضية خاسرة | 이길 수 없는 소송 | |
| | | | ويضحك الشيطان | 그리고 사탄이 웃는다 | |
| | | | هربت من جحيمها | 지옥에서 도망치다(11) | |
| 14 | 2011 | 방성아 | 알라 아스와니의 단편작품 번역 연구 | علاء الأسواني (1957-) | 이집트 |
| | | | أمر إداري | 인사 명령 | |
| | | | لاتيني ويوناني | 라틴어와 그리스어 | |
| | | | فستان قديم وغطاء للرأس | 낡은 원피스와 히잡 | |
| | | | أختي الحبيبة مكارم | 사랑하는 누이 마카림에게 | |
| جمعية منتظري الزعيم | 지도자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임 | | | | |
| 15 | 2011 | 김미영 | 야흐야 앓파히르 압둘라의 단편소설 번역 연구 | يحي الطاهر عبد الله (1938-) | 이집트 |
| 16 | 2011 | 박경은 | 무함마드 알비사피의 단편소설 번역 연구 | محمد إبراهيم الدسوقي البساطي (1937-2012) | 이집트 |
| | | | البراري | 알바라리 | |
| | | | على جانب الطريق | 길가에서 | |
| | | | كوب الشاي الآخر | 마지막 차 한잔 | |
| | | | مشوار قصير | 소소한 용무 | |
| الحافة | 가장자리(21) | | | | |
| 17 | 2013 | 백혜원 | 자카리아 타미르의 『범죄』 단편소설 번역 연구 | زكريا تامر (1931~) | 시리아 |
| | | | الجريمة | 범죄 | |
| | | | جوع | 굶주림 | |
| | | | أف! | 이크! | |
| المخزن العربي | 아랍 가게 | | | | |

| | | | | | |
|----------------|--------------|-----|-----------------------------------|----------------------------|-----|
| | | | العشاء الأخير | 최후의 만찬 | |
| 18 | 2013 | 김수진 | 사이드 알카프라위의 단편집 번역·연구 | سعيد الكفراوي (1939-) | 이집트 |
| | | | البغدادية | 바그다드의 여인 | |
| | | | القط والعصفور | 고양이와 새 | |
| | | | ساعات فرجينيا الأخيرة | 버지니아의 마지막 시간 | |
| 19 | 2014 | 이유경 | 라드와 이슈르의 R여사의 보고서 소설 번역 연구 | رضوى عاشور (1946~) | 이집트 |
| | | | التقرير الأول | 제 1차 보고서 | |
| | | | التقرير الثاني | 제 2차 보고서 | |
| | | | التقرير الثالث | 제 3차 보고서 | |
| | | | التقرير الرابع | 제 4차 보고서 | |
| | | | التقرير الخامس | 제 5차 보고서 | |
| | | | التقرير السابع | 제 7차 보고서 | |
| التقرير التاسع | 제 9차 보고서(36) | | | | |
| 20 | 2014 | 김경희 | 『나는 공작새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번역 연구 | طاهر بهاء (1935-) | 이집트 |
| | | | إنت اسمك ايم | 이름이 뭐야? | |
| | | | لم أعرف أن الطواويس تطير | 나는 공작새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 |
| | | | الجارّة | 이웃집 부인 | |
| 21 | 2014 | 이성숙 | 살와 바크르의 『토끼들』 소설 번역 연구 | سلوى بكر (1949-) | 이집트 |
| | | | أرانب | 토끼들 | |
| 22 | 2014 | 김다이 | 사브리 무사의 단편소설 『사건』 번역 연구 | صبري موسى (1932-2018) | 이집트 |
| | | | حادث النصف متر | 사건 | |
| 23 | 2015 | 김예리 | 나집 마흐푸즈의 단편소설집 『범죄』 번역·연구 | نجيب محفوظ (1911-2006) | 이집트 |
| | | | الجريمة | 범죄 | |
| | | | الحجرة رقم 12 | 12번방 | |
| | | | المقابلة السامية | 높으신 분과의 면담 | |
| 24 | 2015 | 임은선 | 하이파 비타르의 단편소설집 『육체의 외침』 번역 연구 | هيفاء باسيل بيطار (1960~) | 시리아 |
| | | | دموع الشيطان | 사탄의 눈물 | |
| | | | ضجيج الجسد | 육체의 외침 | |

| | | أجديّة الحب | | 사랑을 쓰는 법 | |
|----|------|------------------------|-----------------------------------|---------------------------|-----|
| | | المجنون | | 미친 사람(48) | |
| 25 | 2015 | 김연주 | 이브라힘 아슬란의 단편소설집 『방 두 개와 거실』 번역 연구 | ابراهيم اسلان (1935-2012) | 이집트 |
| | | الحارس | | 경비원 | |
| | | الرجل الذي كسر الطبق | | 접시를 깬 남자 | |
| | | صديق قديم | | 옛 친구 | |
| | | بعد المغرب تقريبا | | 해질녘 | |
| | | آخر النهار | | 늦은 낮 | |
| | | عدس أصفر | | 노란 렌틸콩 | |
| | | كان يعتقد | | 내가 생각하기에 | |
| | | الحجرة الأخرى | | 또 다른 방 | |
| | | حالة | | 사건 | |
| | | أصوات ليلية | | 밤중에 들리는 소리 | |
| | | طعمية منزلية | | 집에서 만든 팔라펠 | |
| 26 | 2016 | 이순형 | 할랄 바라카트의 단편집 『침묵 그리고 비』 번역 연구 | حليم بركات (1932-2018) | 시리아 |
| | | المطر والصوت (1958) | | 침묵 그리고 비 | |
| 27 | 2016 | 이지윤 | 무함마드 알비사피의 단편소설집 『수감자들』 번역 연구 | محمد البساطي (1937~2012) | 이집트 |
| | | الوشم | | 문신 | |
| | | الخروج | | 출소 | |
| | | محابيس | | 수감자들 | |
| | | حديث من الطابق الثالث | | 3층에서 나온 대화 | |
| | | القطار الملكي | | 왕실 열차 | |
| | | السحبن | | 죄수 | |
| | | سداة | | 마개 | |
| | | إعدام | | 사형 | |
| | | | | إيقاعات أنثوية محرّمة | |
| | | هل أمارس جنونتي | | 미친 짓을 해야 할까? | |
| | | لا بد أن تغرّد البلابل | | 내일은 필시 나이팅게일이 지저귄 거야 | |
| | | طقوس غير شرعية | | 불법 의식 | |
| | | ..وارتمت الحقيقة أمامه | | 그 남자 앞에 던져진 진실 | |

| | | المرأة الأخرى | | 다른 여자 | |
|------|------|-----------------------------------|---------------------------------------|---------------------------|-----|
| | | نساء عند خط الاستواء | | 적도 위의 여인들(75) | |
| 29 | 2016 | 윤소연 | 나집 마흐푸즈의 단편소설집 『버스 정류장 차양 아래에서』 번역 연구 | نجيب محفوظ (1911-2006) | 이집트 |
| | | تحت المظلة | | 버스 정류장 차양 아래에서 | |
| | | النوم | | 잠 | |
| | | الوجه الآخر | | 또 다른 얼굴 | |
| | | الحاوي خطف الطبق | | 마술사가 훔쳐간 접시 | |
| 30 | 2016 | 채규리 | 한나 미나의 자전적 소설 『내 어린 시절의 기억』 번역 연구 | حنا مينه (1924-2015) | 시리아 |
| | | !الوعي الأول بالوجود | | 존재에 대한 첫 인식 | |
| | | !الأم الخالدة ومفاداتها | | 불멸의 모성애가 지닌 의미 | |
| | | !شيء من الذكرى | | 추억의 일부 | |
| | | !الباطر(.. وجون القراء بها)) | | 독자들이 열광한 알아띠르 | |
| 31 | 2016 | 이다솜 | 누라 아민의 단편소설집 『삽입문』 번역 연구 | نورا أمين (1970~) | 이집트 |
| | | أختي | | 언니 | |
| | | في الصباح | | 아침에 | |
| | | حدوثة كبار وصغار | | 어른과 아이 이야기 | |
| | | ...اليوم عدت | | 내가 돌아온 그날 | |
| | | أبلة صفاء | | 아블라 사파 | |
| | | انتحار فريسة | | 제물의 자살 | |
| | | امرأة تمقت اسمها | | 자신의 이름을 싫어하는 여자 | |
| | | أمطار موسمية | | 계절비 | |
| | | قبلة الوداع | | 작별의 키스 | |
| | | امرأة تعشق اسمها | | 자신의 이름을 사랑하는 여자 | |
| | | الحلم الأخير | | 마지막 꿈 | |
| | | أسرار أو جمل اعتراضية | | 비밀 혹은 삽입문(95) | |
| 32 | 2016 | 양보람 | 자카리아 타미르의 단편 『적군』 외 번역 연구 | زكريا تامر (1931~) | 시리아 |
| | | الأعداء | | 적군 | |
| | | يوسف... يوسف الصغير الجميل الهالك | | 유수프, 어리고 잘생긴 그러나 치명적인 유수프 | |
| | | الاستغاثة | | 구조요청 | |
| | | يا أيها الكرز المنسي | | 아, 잊혀진 체리 | |
| | | التراب لنا وللطيور السماء | | 땅은 우리의 것, 하늘은 새들의 것(100) | |
| 2017 | 하소운 | 사마르 알마즈간니의 단편 | سمر المزغني | 튀니지 | |

| | | |
|----|------------------|-------------|
| 33 | 시침<時針>의 번역 연구 | (1988 -) |
| | عقرب صغير | 시계바늘 |
| | حفلة زفاف | 결혼식 |
| | خلف الستار | 커튼 너머로 |
| | غضب الطبيعة | 자연의 분노 |
| | غرفة الفئران | 쥐들의 방 |
| | حيلة زكية | 교묘한 계략 |
| | الدموع | 눈물 |
| | البطل المغامر | 모험심 강한 영웅 |
| | حمامار في غابتنا | 우리 숲 당나귀 |
| | الوحش | 괴물 |
| | متدبل أبيض | 하얀 냅킨 |
| | نهاية المسير | 길의 끝 |
| | العصفور | 참새 |
| | سحابة الدخان | 연기구름 |
| | نقطة استفهام | 물음표 |
| | صديقة | 친구 |
| | سر قصر الظلام | 어두운 저택의 비밀 |
| | يوميات كسولة | 게으름뱅이의 일기 |
| | محاكمة ذئب | 늑대 재판 |
| | سارق الحقل | 밭 도둑 |
| | لأني فأر | 나는 쥐니까 |
| | كذبة أفريل | 만우절 |
| | وغدوت ... نملة | 나는 개미가 되었다 |
| | آثار الرخام | 석고의 흔적 |
| | بين الحيوانات | 동물 사이에서 |
| | بقايا حلم وردى | 장밋빛 꿈의 잔재 |
| | دعوني أحلم | 꿈을 꾸도록 해주세요 |
| | الكناري | 카나리아 |
| | السراب | 신기루 |